

출생률 낮아져 자녀 양육·부담 때문에 결혼 미룬다?

광주에서 나고 자란 5명의 청년은 사회문제에 대한 챗GPT의 답변에 때로는 공감하고 때로는 탄축을 걸었다.

ANSWER ME



챗GPT처럼 '답정(답은 정해져 있다)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냐고 탄축 가는 재기발랄한 청년 5인이 뭉쳤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일보사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주요 현안을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에 묻고 '끝장 토론'을 벌였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챗GPT의 교과서 같은 답변, 청년들 속 뚫리지 않네

광주 청년들 AI와 '끝장토론'  
광주형 일자리·결혼·사회재난  
챗GPT는 그럴싸한 답변

답을 얻기 쉬운 세상 됐지만  
복잡하고 풀기 힘든 문제  
아직은 인간이 답해야 할 듯



직장인 김지강씨



NGO 활동가 김은경씨



사회 초년생 김정애씨



취업준비생 임현후씨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장대환씨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의 등장으로 현대사회는 '답을 얻기 쉬운 세상'이 되고 있다. 다섯을 세기도 전에 1000자 넘는 분량의 답변을 쏟아내는 챗GPT가 있어도 주변에는 복잡하고 풀기 힘든 문제가 쌓여만 간다. 청춘기 굵직한 문제들을 만나는 청년들은 챗GPT가 내놓는 그럴싸한 해답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을까. 광주에서 나고 자란 5명의 청년은 지난 13일 오후 금남로 광주일보 회의실에 모여 챗GPT의 사회현안에 대한 구구절절할 답변에 때로는 공감하고 때로는 탄축을 걸었다.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4학년 장대환(26)씨, NGO(비영리시민단체) 활동가 김은경(31)씨, 사회 초년생 김정애(28)씨, 기획자를 꿈꾸는 취업준비생 임현후(27)씨, 직장인 김지강(35)씨는 자기 삶의 터전에 대한 애정을 담아 밤늦도록 '끝장토론'을 벌였다. - 지난달 열린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올해 첫 신입사원 채용 지원 경쟁률이 24.8대 1을 기록했다. 38명을 뽑는 공개채용에 941명이 몰렸다. 광주형 일자리 첫 성과인 GGM은 신차 '캐스퍼' 흥행을 몰고 있지만 '반값 연봉'과 주거 등 대체복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유입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챗GPT=광주형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경험과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 청년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광주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산업 구조 변화, 생활 환경, 교육, 문화적 측면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유입 효과

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대환=광주·전남 청년들이 자신의 고장을 떠나려는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챗GPT 답변처럼 광주형 일자리가 어떤 청년에게는 '경험'이 될 수 있겠지만 진로와 적성이 확실한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광주형 일자리 범위가 제조업에 머물지 않고 청년의 수요에 맞게 다양화하길 바란다. ▲은경=부산과 김해, 때로는 서울에서 사는 내 또래들은 집값 부담이 덜한 광주에서 살고 싶어 한다. 수도권에 살아가는 생활에 지친 친구들도 광주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일자리 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다양한 일터가 있어야 한다. ▲정애=광주형 일자리가 청년 사이에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벨'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지강=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벌인 생산직 공채에 18만명이 몰렸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 광주 20~30대 인구는 올해 3월 기준 37만1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2000명이 빠졌다. 광주 전체 인구의 26%인 청년층을 보듬을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 연봉이 적더라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겠다는 '광주형 일자리'에 과연 '광주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하는지도 생각해볼 대목이다. ▲현후=한마디로 말하면 광주형 일자리는 청년의 목마름을 해소하기에는 감질이 난다.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탐내는 일자리를 만들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 - 대한민국 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20~30대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챗GPT=비수도권은 대도시보다 경제적 기반과 일자리가 미약하므로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는 높고, 경쟁이 치열하다. 학업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게 된다.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자녀 교육과 양육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기 개발과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기도 했다. ▲은경=비혼주의로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 비혼이든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되기도 했다. 50~60대인 우리 직전 세대까지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지만 현 청년 세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가족 부양의 책임은 점차 가정에서 사회로 옮겨지고 있다. 청년들은 '버티는 삶'을 살면서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내 몸과 일상의 균형이 무너지는 걸 감당할 여력이 없다. ▲대환=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자녀 양육과 부담 때문에 결혼·출산을 미룬다는 챗GPT의 답변에 동의할 수 없다.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자녀를 낳기 위한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다. 학업과 취업 경쟁 때문에 결혼을 미루기도 하지만, 반대로 직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정을 꾸려 균형을 맞추려는 청년도 있다. ▲정애=사회 전반적으로 '결혼을 말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최근 가정에서 불거지는 문제를 전문가가 상담해주는 TV 방송들을 보면 '결혼은 지옥' 같아 보인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치자.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아플 때 일터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직장은 얼마나 있을까. 정부 정책이 '출산'이 아니라 '양육'에 초점이 맞춰져

야 한다. ▲현후=개인주의가 심화하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문화도 생각해 볼 부분이다. 나 스스로 결혼과 출산을 원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을 수 있다. ▲지강=대한민국은 '과장'이 사라지고 결과론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남이 가진 걸 자신은 갖지 못하는 '박탈감'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시대이다. 자신의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거나 알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도 결혼·출산 포기에 한몫할 것이다. 자신이 꾸릴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중압감을 뒤로하고 몰입할 다른 요소를 찾으면서 '조카 바보' '덕후'라는 말이 생겨나는 것 같다. - 세월호 참사와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이태원 10·29 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뭔가. 사회적 재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현후=사회재난을 막으려면 정부와 시민들, 전문가들,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법령과 제도적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전 관련 위반 때는 엄격한 제재를 통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 조직 내부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적으로는 안전 의식과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의 안전성 검사와 보수를 철저히 해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공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은경=학동 참사가 일어났을 때 아버지가 관련 업무를 하시기에 한동안 불안했던 기억이 있다. 세

월호 이전의 삼풍백화점 붕괴, 천안함 침몰 등 대한민국의 일어난 일련의 참사를 봤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일인가' '막으려는 의지는 있는가'라는 물음을 되돌아본다. 사회적 참사의 반복을 보면서 무력감을 떨쳐내려 더욱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 ▲현후=사고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은 제도 뒤에 숨어서 얘기하려고만 한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 사례는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해결이 없는 과정을 보고 많은 청소년과 청년이 실망했다. 참사의 책임 소재를 두고 정쟁, 이해관계를 떠나 도의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애=올해 진행 균형제에는 450만명이 다녀갔는데도 큰 사고 없이 행사를 마무리했다는 기사를 봤다. 귀경 떨어질만큼 대중 경보장치를 크게 올려 준중 밀집도를 낮춘 '작지만 꼭 필요한 노력' 덕분이었다. 안전지침을 지키고 자율적인 안전 의식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다. ▲대환=이태원 참사 현장에 내 친구도 있었다. 친구의 입에서 들은 참사 현장은 끔찍하기 그지없었다. '나와 내 가족에게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만 있었으면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였다. 단 안전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관리자·담당자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과 세세하게 공유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강=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지 못한 데는 '공감'과 '수용' 부족한 이유가 크다. 현대사회는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낸다면 무조건 진영 대결로 치닫는 현상이 팽배하고 있다. 큰 목소리가 결정에 반영되고 소수 의견은 못 들은 척하는 그런 관행이 일련의 사회적 참사를 낳게 됐다. /정리=백희준 기자 bhj@